

옛 소련 지역 한국인 동포의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 단독주택 평면을 중심으로 -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주거건축, 구들, 고려인,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옛 소련

1. 서론

한국인이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40년전 함경북도와 연결한 연해주 지방에 이주하여 정착하면서부터다. 연해주 지방의 한국인 동포는 그 후 연해주를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일대에도 거주하게 된다. 옛 소련 지역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에 대한 호칭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한국 학계에서는 ‘재소 한인’, ‘재중앙아시아 한인’, ‘재러시아 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의 정부와 현지 한국인 동포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거건축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¹⁾

옛 소련 지역인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독립운동사와 이민사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 들어서 인류학과 민속학 분야에서 한인동포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건축·주거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옛 소련 지역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주거건축의 변화를 단독주택의 평면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거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고려인들의 주거문화가 옛 소련 지역인 현지의 주거문화와 절충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연해주로 한국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1864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 실시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 함께 기행문,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주거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총 네 차례의 현지답사와 한 차례의 현지 방문 문헌조사를 하였다.²⁾ 현지답사를 하면서 관련 가족

2) 네 차례의 현장답사는 1차: 2003년 4월 20일-4월 30일, 러시아 연해주; 2차: 2003년 6월 24일-7월 5일, 러시아 연해주; 3차: 2003년 11월 4일-11월 14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4차: 2004년 1월 30일-2월 11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었다. 이외에도 2004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도서관들과 문서보관소들을 방문하여 고려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답사 마을과 가족의 선정은 현지 고려인협회의 안내와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본 연구자는 현지 고려인협회 관계자들과 조사와 면담에 응해주고 고려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과제번호 R01- 2002-000-00252-0(2002)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러시아의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외되었다.

들을 실측 조사하였으며,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 노인들과 면담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고려인들의 현재 주거생활은 물론, 이주 초기의 주거모습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었다.³⁾

2. 본론

2.1 고려인 이주사

연해주 지방으로 고려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1864년 두만강 건너 포시에트(Посыет, 木花村)지역에 정착한 것을 기점으로 본다.⁴⁾ 그 이후 이주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1868년에는 165호, 1869년에는 776호가 이주하였는데, 이 시기에 연해주에 형성된 고려인 마을로는 티진헤(Тизинхэ), 얀치헤(Янчихэ), 시디미(Сидими), 아디미(Адими), 차피고우(Чапигоу), 그람베(Крамбу), 후드바이(Худуван) 등이 있다.

그 후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마을은 점차 국경에서 멀리 퍼져나갔다. 1870년대에 들어 러시아 정부는 고려인들의 증가와 국경지역에 고려인들이 밀집하는 것을 우려하여 고려인들을 한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가까운 포시에트 지역에서 북쪽이나 동북쪽 먼 곳으로 이주시키거나, 러시아인 마을로 산재시켰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海蔘威)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수이푼(Сыйфун, 秋風),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수찬(Сучан, 水淸)계곡 등지에도 정

착하게 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1893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구역 하나를 설정해 해주었는데, 그 마을 이름은 개척리(開拓里)이다. 당시 개척리 일대에는 700여 가구, 7,500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1년 개척리에 페스트가 창궐하자 러시아 당국은 고려인들을 블라디보스토크 북부 변두리로 강제로 이전시켰는데, 새로 이주한 곳은 신한촌(新韓村)이라 불렀다.

그 후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계속 증가하여 1904년에 32개이던 고려인 마을이, 1925년에는 164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소수는 도시 생활자 속에서 볼 수 있는 고용인, 노동자 또는 영세상인으로 전전했다.

연해주 지역에 정착하여 어렵게 살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던 고려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이 닥친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정부는 극동지방에서 일본인의 간첩행위를 저지할 계획으로 모든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키기로 극비로 결정한 것이다. 강제이주는 1937년 9월에 시작되어 12월 25일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숫자는 17만 5천명 이상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지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 대부분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콜호즈(Колхоз)⁵⁾에 배치되었다.⁶⁾ 일부 고려인들은 현지인들의 콜호즈에 포함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인들만의 콜호즈를 구성했다.⁷⁾

고려인들은 이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으

3) 현재, 고려인들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고려인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된 것은 1937년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면담 대상으로 하였던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전후 고려인들의 주거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다. 강제이주 당시 10세이면 2004년 현재 77세가 된다.

4) 권희영,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국사판논총』 제4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박환, 「재소한인 민족운동사」(국학자료원 1998.);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담구당, 1996.); 이상일, 「한인의 노령이주와 제정러시아의 대한인 정책」(『태동고전연구』 제14집, 태동고전연구소, 1997.); 이철, 「한국인의 러시아 이민사」(『슬라브연구』 7, 한국의국어대학교 소련 및 동구권문제 연구소, 1991.); 김필동,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농촌 사회의 변화와 농민생활」(『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 지성사, 1996.); П. Ким: *Корейц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Ташкент, 1993.), И.С. Болджурова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быт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Кыргыз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Бишкек, 2003.)

5) 생산수단의 공동화단계에 따라 콜호즈는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가장 초급의 형태는 경지만을 공동화한 토지공동경작조합(Т03, Товарищество по совместной Обработке Земли), 다음으로 경작지와 가축, 농기구의 주요한 부분을 공동화한 아르텔(Артель)(여기서는 주택에 딸린 채소밭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작에 필요한 생산수단 및 약간의 가축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화의 완전한 형태가 '콤무나(Коммуна)'로 불렀다.

6) 강제이주 된 고려인들은 타슈켄트주의 Bekabadskii, Chinazskii, Verkhnechirchinskii, Crednechirchinskii 구역, 페르가나주, 사마르칸트주, 호레즘주, 부하라주, 카라팍파 자치공화국의 여러 구역으로 흩어졌다.

7)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한 한인들 중 9,807가구는 콜호즈나 소포드로 수용되었고, 700가구는 어업으로 생활하였으며, 5,800가구는 노동자 및 피고용자가 되었다.

나, 목화와 벼를 기록적으로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현지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 콜호즈, 폴리타셀 콜호즈와 김병화 콜호즈는 옛 소련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콜호즈로 인정받았으며, 고려인들의 소득 수준은 다른 민족에 비해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다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 당국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철폐하였다. 이때부터 일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지방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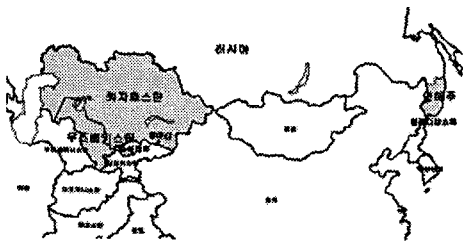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지역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한 것은 1989년 9월 민족정책강령이 정해진 이후다. 1991년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옛 소련의 11개 공화국들이 각각 독립하게 되었다. 이들 독립 국가들이 독립 초기부터 주창한 회교중심 민족주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연해주를 비롯한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 등지로 이주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93년 3월 통과된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은 고려인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강제이주 이전의 원래 거주지로 귀환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고려인들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그 후 주춤한 상태이다.

2002년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연해주에는 32,62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는 101,972명이, 우즈베키스탄에는 177,041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⁸⁾

2.2. 시기별 주거형식

한국인 동포가 조국의 고향을 떠나 연해주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186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이민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맞춰 주거건축에도 변화한 내용이 보이는데, 각 시기별 단독주택의 주거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가. 1기(1864-1937)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이주한 직후에 건립된 고려인들의 마을들과 주거건축은 현존하지 않는다.¹⁰⁾ 하지만, 문헌자료와 생존하는 노인들과 몇 차례 실시한 면담을 통해 그 모습을 복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림 2. 경작지로 변한 연해주 안치혜 고려인 마을 터

1855년에서 1886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



그림 3. 『아국여지도』에 표기된 고려인촌(我民村)과 러시아인촌(俄民村)

정되는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¹¹⁾와 (그림 3. 참조)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의 기행문¹²⁾ (그림 4. 참조), 페소츠키의 글¹³⁾ 등의 문헌자료에서 연해주로 이주한 직후의 고려인들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주택과 같은 것을 건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생활 풍습을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⁴⁾

9)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거건축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대별된다. 대도시와 그 외곽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농촌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10)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기 전까지 살았던 고려인들의 주거를 확인하기 위해 2003년 4월과 6월 두 차례 마을이 있었던 큰 여섯 지역을 방문하였으나 모두 농지로 전환되고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돌확, 연자방아 등 생활에 사용한 극소수의 증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를 안내한 사람들 모두 옛 소련 당국이 의도적으로 당시 고려인들의 마을들을 모두 없앴다고 증언하였다.

11) 『俄國輿地圖』, 「鹿屯島圖」(지금의 크라스노예셀로), 「延秋我民村圖」(지금의 크라스키노).

12)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1994), p.266, 276.

13) V. D. 페소츠키, 『沿黑龍 지방에서의 한인문제』(하바롭스크, 1913, 류학귀, 『한민족공동체와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한민족공명체』 제6호, 해외한민족연구소, 1998, p.195에서 재인용).

8)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2003), pp.169-170, 176-177, 179.



그림 4. 시베리아의 한국 정착민들
(출처: 이사벨라 버드 비숍, p.279)

이 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전인수씨(2003년 현재 80세, 그림 5)의 증언에 의하면, “가옥은 흙과 짚으로 벽을 만들었으며 깔(갈대)로 지붕을 씌웠다. 벽은 찌르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얇았으며 각 방은 서로 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가옥은 약방을 겸하고 있었다. 집에는 온돌을 설치하여 매우



그림 5. 전인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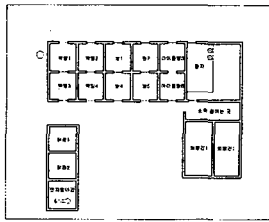


그림 6. 전인수씨 가옥 추정 평면도

따뜻했다. 화장실은 집 뒤에 밭을 파고 바자울로 둘러서 사용하다가 다 차면 그 옆을 또 새로 파서 썼다. 정지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여기에서 식사 준비를 했으며 여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정지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남자들은 전면 칸에 거주하였으며 여자들은 후면 칸에 거주하였다. 버들가지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전인수씨는 위의 증언과 함께 살았던 집의 배치 평면을 그림 6과 같이 손으로 그리며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의 고향인 함경도 지방의 규모가 큰 양통집 평면과 같은 것이었다.¹⁵⁾

14) 이상해, 이진현,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권 1호, 대한건축학회, 2003), p.380.

현재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리나자 할머니(78세)는 1937년 강제이주 전에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가옥은 방 3칸과 고방(곡식 창고), 정지(부엌)가 있었고 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셨다.”(그림 7)¹⁶⁾고 하였으며, 현재 리나자 할머니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박 엘레나 할머니(75세)는 1937년 강제이주 전에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였는데, “당시에 거주하였던 집은 네 칸 집으로 안방, 고방, 옷방, 방앗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칸마다 구들(온돌)이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잤다.”고 한다.

리나자씨와 박 엘레나씨가 증언한 가옥의 평면은 이들 부모가 연해주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함경도 지방의 양통집 평면과 같으며, 전인수씨의 가옥은 규모가 큰 양통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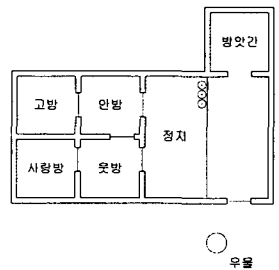


그림 7. 리나자씨 가옥 추정 평면도

이상 증언을 통해 이 시기 고려인들의 주거는 연해주로 이주하기 전 함경도 지방에서 살았던 주거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함경도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러시아식 주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있었으며, 이 두 양식이 결합된 주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18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러시아 당국의 러시아인 극동 이주 정책¹⁷⁾으로 인해 이 시기 고려인들의 주거 중에는 러시아 주거형식과 조선의 주거형식이 혼합된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하지만, 비록 러시

15) 그림 6. 도면은 전인수씨가 스케치하며 설명한 것을 본 연구자가 다시 정리한 것이다.

16) 리나자씨 가옥 추정 평면도는 리나자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17) 이상근, 위의 책, pp.30~33.

18) '1875년 8월 1일 푸질로프카 지역에 도착한 한인들은 8월 2일부터 집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 한인들은 스스로 러시아인들과 같은 집을 짓기를 원했다(예바긴, 『아무르의 한인들』,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1996. p.153에서 재인용)고 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고려인들 중 일부는 러시아식 주택을 선호했던 것으

야식 주거에 거주한 고려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 고려인들은 난방을 위해 구들을 설치하고 좌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인들 주거는 페치카로 난방을 하고 침대에서 기거하며 입식생활을 한 러시아식 주거와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나. 2기(1937-1955)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그 해 겨울에 고려인들은 ‘젬랴카(Землянка)’라고 불리는 땅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강제 이주 직후 고려인들 중에는 현지인들의 가옥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 땅집을 짓고 살았다. 이러한 땅집은 그림 8과 같이 임시로 지은 구조물이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을 지낸 고려인들은 스스로 콜호즈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그들 생활에 맞는 가옥을 지었다. 그 시기는 대략 1940년 전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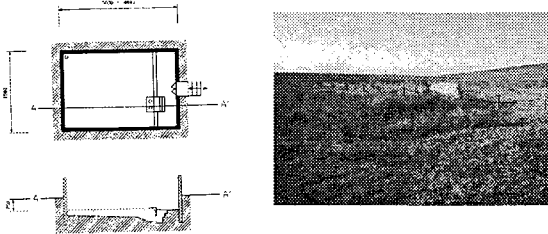


그림 8. 바슈토베 땅집 평면, 단면과 땅집 터 (단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정 도면임)

강제 이주 초기 고려인들의 대표적인 주거 흔적은 카자흐스탄 바슈토베(Бастюб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바슈토베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땅을 파고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지었는데, 구조물은 가로 150cm, 세로 300-400cm 정도 되는 크기에 지표면에서 75c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서 그 위에 구축한 것이었다.(그림 8 참조) 이 구조물에 한 가족이 거주하였다. 내부에는 구들을 놓아 난방과 조리를 겸하였고 구들방에서 한 가족이 식사와 취침을 함께 하였다. 토굴 위의 지상에는 나뭇가지와 풀 등으로 그림 9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붕을 만들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김금단(80세)²⁰⁾ 할머니

로 추측된다.

19) 이상해, 이진현, 앞의 논문, p.380.

20) 김금단 할머니(애칭은 슈라, 러시아 이름은 알렉산드르)는 연해주 아무르강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였으며, 21

는 강제 이주 당시 14세 였는데, “땅을 파고 구들을 설치했으며, 깔을 묶어서 벽체, 용마루, 서까래, 기둥 등을 만들었으며, 1942년까지 땅집에서 살다가 흙벽돌로 집을 지었다.”고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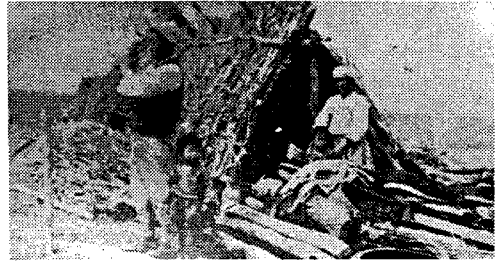


그림 9. 강제이주 초기의 땅집
("사진으로 보는 한인 이민사와 카자흐스탄" 사진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3. 11.)

강제 이주 직후 지은 땅집을 종합하면, 생존을 위한 최소 주거를 현지에서 급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지은 구조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구조물은 선사시대의 움집과 같이 땅을 판 후에 깔로 세운 경사진 벽(지붕)으로 구성된 것인데, 깔에는 깔이 썩는 것을 보호하고 실내를 보온하기 위해 흙을 바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벽의 두께는 약 20cm 정도였다. 땅집의 출입구는 하나였으며, 굴뚝이 밖으로 나있고, 실내는 정지와 방 사이에 칸이 질러져 있지 않은 통칸이었다.

1940년을 전후한 시기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후 서서히 자립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고려인들의 경제사정은 조금씩 좋아졌으며, 콜호즈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가옥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옛 소련의 주택 건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시 경제체제와 전후 복구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많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전장으로 나가거나 공장 등지의 노무자로 송출되었다. 콜호즈의 노동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식량난이 뒤따랐다. 이와 같은 절체적인 빈곤 속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가옥을 고려인들은 건설하였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면서 주택들이 점차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가옥의 평면형식은 전후 복구사업이 끝나는 1955년 전후까지 지속된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를 스스로 마

살 때 25살 되는 남편과 결혼했다.

련하기 위해 1940년을 전후로 해서 벚장(흙벽돌)²¹⁾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공간을 구비한 가옥을 많이 지었다. 가옥에는 구들을 설치하였으며, 짚을 사용하여 지붕을 이었다. 현지에 거주하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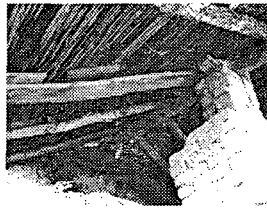


그림 10. 아흐마드 야사비 빈집 지붕

려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엔 짚을 묶어서 집을 지었으며 용마루, 서까래, 기둥도 짚로 만들었다. 큰 짚의 지름은 4cm인 것도 있었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시기 대부분의 가옥들은 흙벽돌로 벽을 쌓고, 짚로 지붕을 덮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생존하고 있는 노인들과 면담한 결과, 이 시기 대부분의 가옥들은 가옥 주변에 넓은 텃밭이 있는 곳에 건립되었으며, 본채 외에 창고, 헛간, 축사, 부속채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채의 평면은 아궁이가 있는 정지간 1칸, 구들방 1칸, 혹은 정지간 1칸, 구들방 2칸인 ‘—’자형의 홑집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²²⁾

우즈베키스탄의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의 경우, “부엌과 방이 붙어서 부엌에서 불을 때서 요리하고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게 했으며, 방은 2칸, 3칸 등 다양했으나, 기본적으로 웬만한 집은 3칸 집이었다. 콜호즈에서 집을 지을 때 몇 칸 짓느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다. 재료만 주었지, 표준 설계를 주면서 똑같이 지으라고 하진 않았다.”고 김금단 할머니는 증언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가옥인 카자흐스탄 우슈토크베의 최 루시아 가옥, 우즈베키스탄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의 최 게나지 가옥, 같은 콜호즈의 빈집, 우즈베키스탄의 박 아나톨리 가옥을 2004년 2월 조사하였다.

최 루시아 가옥(그림 11, 12, 13)은 1938년 건립되었는데, 2호 연립주택이다(그림 11 배치도의 회색 부분). 가옥 주변에는 텃밭이 있고, 본채는 흙벽돌로

지었는데, 구들방 1칸, 아궁이가 있는 정지간, 현관, 창고로 구성되었고, 이외에 디딜방아가 있는 가축사, 헛간, 창고, 변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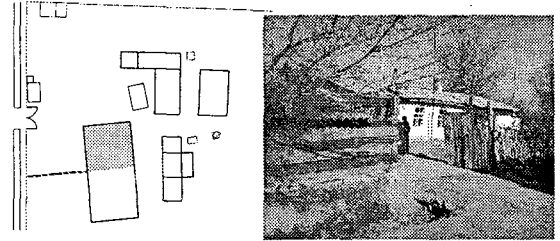


그림 11. 우슈토크베 최루시아 가옥 배치도와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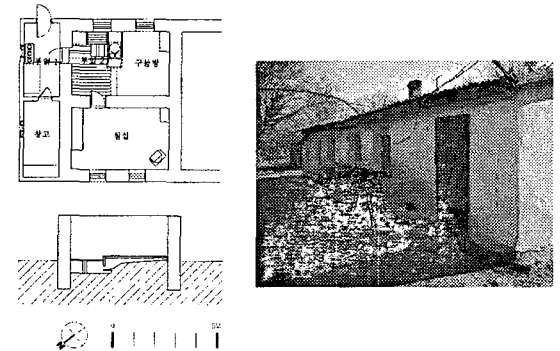


그림 12. 최루시아 가옥 평면도와 구들, 외관



그림 13. 최루시아 가옥 아궁이와 디딜방아

1938년 건립된 최 게나지 가옥(그림 14)의 본채는 흙벽돌로 지은 홑집으로 원래 정지간, 구들방 둘로 구성된 평면이었으나, 1970년대에 정지간은 거실로 사용하고, 건물 전면에 정지간을 증축하였다. 본채 이외에 부속채, 창고, 축사, 변소가 있으며, 옥외에 평상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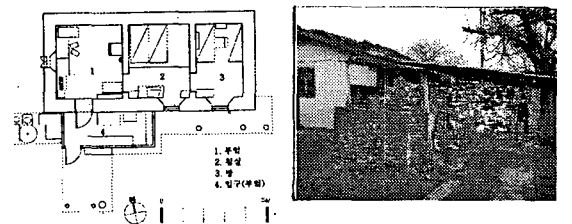


그림 14. 아흐마드야사비 최게나지 가옥 평면도, 외관

21) 흙벽돌은 고려인뿐만 아니고 이 지방에 많이 사용되는 건축재료이다. 흙벽돌의 제작은 땅을 판 후 흙과 짚, 물 그리고 소똥 등을 넣고 밟은 후 틀에 넣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2) 주장현은 전통적인 구들과 짚로 만든 지붕을 민족적 양식을 간직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장현: 「주생활」(『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9, 국립민속박물관), p.235.

옛 소련 지역 한국인 동포의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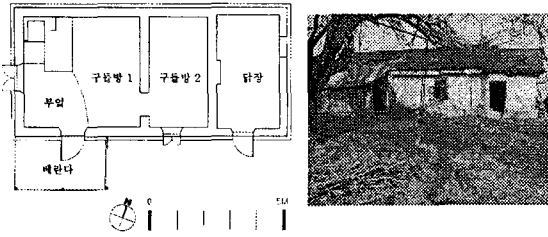


그림 15. 아흐마드 아사비 빈집의 평면도와 외관

현재 빈집인 고려인 가옥(그림 15)은 기본적으로 최 계나지 가옥과 평면 구성이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박 아나톨리 가옥(그림 16)은 1938년에 건립되었다. 이 당시 지은 본체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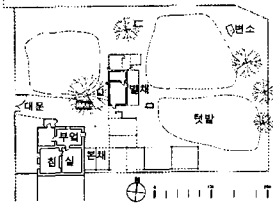


그림 16. 우즈베키스탄 박 아나톨리 가옥 배치도

별채로 사용하고 있고, 1960년대에 이 별채의 남서쪽에 본체를 신축하였는데, 본체의 평면은 앞부분에 현관과 부엌, 뒷부분에 구들방 2칸으로 구성되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이 시기에 건립된 가옥은 콜호즈에서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었는데, 깔로 덮은 지붕, 흙벽돌 벽이 대부분이었으며, 평면은 ‘—’자형 홀집 평면 형식을 한 것이 많다. 정지간에는 아궁이가 설치되었고, 실내에는 한국 전통의 구들을 설치하여 좌식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이 시기의 가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생활을 반영하는 가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3기(1955-1991)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1955년부터 사회주의권 경제가 좋아지면서 옛 소련에는 새로운 평면형식의 주택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건립된 주택들은 모두 중앙 정부(소비에트 연방)의 ‘티피컬 프로젝트’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중앙 정부가 표준 도면을 작성하여 보급하면, 각 지방에서는 보급 받은 표준 도면을 현지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평면 틀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준 것과 같았다.

이런 이유로, 전후 복구사업이 끝나는 1955년부터 고려인들이 지은 가옥의 평면은 이전시기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55년 이전의 ‘—’자형 평면에서 본채 평면이 복

도방을 중심으로 각 방이 연결되는 러시아식 주택 평면으로 바뀌고,²³⁾ 별채가 본채 주변에 별도로 건립된 점이다. 이 시기에 지어진 가옥에는 벽돌,²⁴⁾ 시멘트, 나무 등이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난방은 폐치카를 이용하여 하였고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은 본체의 방 한 칸, 혹은 별채에 있는 방에 설치하였다.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 이후가 되면 대부분 고려인들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기존 주택을 수리해서 사용하게 된다.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려인 가옥들은 이 시기의 것이다. 면담조사 결과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고려인들의 취침방식은 구들에서 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편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조사를 통하여 고려인들은 구들을 놓은 방에 누워 자는 대신 침대에 자는 것을 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고려인들은 전통적인 좌식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옥의 어느 한 방을 구들을 놓은 방으로 만들어 식사, 휴식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의 가옥들은 모두 정부의 ‘표준도면’으로 건립되었으나 현지 사정에 맞게 변형되어 지어졌다. 현지조사 결과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 가옥의 평면의 기본틀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하지만, 각 지역의 기후조건에 따라 스타부니(덧창문)의 설치 유무, 감자굴의 유무, 베란다의 활용 등에서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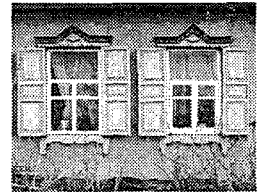


그림 17. 연해주 정연순 가옥 덧창문

연해주 지역 고려인들은 추운 겨울로 인해 베란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정연순 가옥 처럼 창문에는 스타부니(그림 17)가 설치되어 있고, 우정마을의 주택처럼 주택 부엌에는 감자굴(그림 18)이 있다. 이에 반해, 우즈베키스탄의 가옥

23) 본채·창고·야외 화장실·야외 샤워시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사우나 시설·여름 부엌 등은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설치여부가 다르다.

24) 면담을 통한 증언에 의하면 1955년부터 러시아에서 벽돌을 갖다 주어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창문에는 스타부니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으며, 감자굴도 없었다. 오히려, 베란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마당에 평상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두 지역의 기후 차이로 인하여 주거 평면의 기본 형식은 같으나 가옥에 부수되는 시설은 현지 기후조건에 맞게 조정되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조사 당시 대부분의 가옥들이 4기에 해당하였다. 4기에 지어진 많은 주택들은 그 후 증축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장 니콜라이 가옥, 연해주 정연순 가옥에서 4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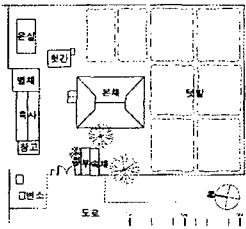


그림 19. 카자흐스탄 장 니콜라이 가옥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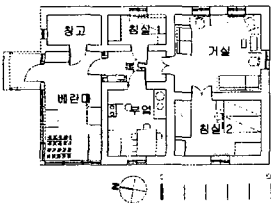


그림 20. 장 니콜라이 가옥 본채 평면도,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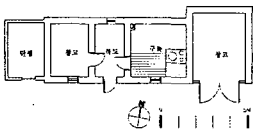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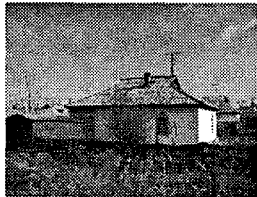


그림 21. 장 니콜라이 가옥 별채 평면도, 외관



카자흐스탄 우수토베에 위치한 장 니콜라이가옥(그림 19, 20, 21)은 1960년에 건립된 가옥으로, 본채, 별채, 축사, 창고, 온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채는 도로와 평행하게 자리 잡았는데, 현관을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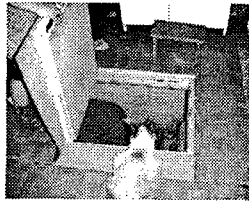


그림 18. 우정마을 부역의 감자굴

어서면 오른쪽으로 부엌, 왼쪽으로 창고가 위치하였으며, 이곳을 지나면 나오는 홀에서 각 실로 출입하도록 되어있는 러시아식 평면을 하였다. 별채에는 아궁이가 설치된 구들방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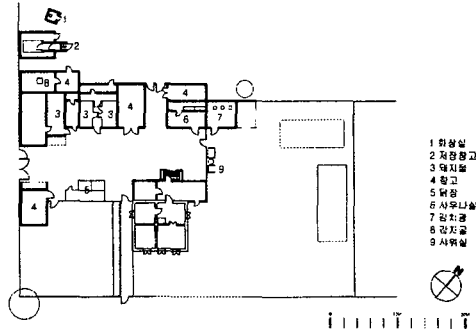


그림 22. 크로우노프카 정연순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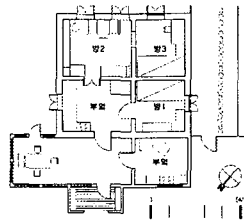


그림 23. 정연순 가옥 본채 평면도, 외관

연해주 크로우노프카에 위치한 정연순 가옥(그림 17, 22, 23, 24)은 1985년에 건립되었는데, 본채, 돼지울, 닭장, 창고, 저장창고, 김치광, 감자굴, 화장실, 사우나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채는 도로에 가깝게 면해 있고, 그 반대쪽인 본채의 북동쪽으로는 넓은 텃밭이 있다.



그림 24. 정연순 가옥 전경

조사된 그 이외의 많은 가옥들은 표 2의 연해주 김 일루사 가옥, 카자흐스탄 김순녀 가옥, 우즈베키스탄 박 블라디미르 가옥과 같이 본채에 텃대어 증축되었는데, 이들 가옥 대부분은 현재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일대 고려인들 가옥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룬다. 또한, 이 시기의 가옥들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박 아나톨리 가옥(그림 16),

25) 본 논문에서는 3기에 건립되어 증축·변형되어 현존하는 가옥들도 모두 3기에 포함시켜서 분류하였다. 단지, 3기에 건립되었다는 점과 증축 및 변형의 시기가 대부분 1990년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기로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분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드미트리 콜호즈의 박 이들렌 가족과 같이 3기에 건립된 가옥을 별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 이들렌 가족(그림 25, 26, 27)은 원래 1940년에 지은 정지간과 구들방 2칸으로 된 홑집이었는데, 1970년대에 기존의 가옥 북서쪽에 지금 살고 있는 가옥을 새로 지어 본채로, 기존의 가옥은 별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5의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별채이고, 오른쪽의 것은 본채이다. 본채는 러시아식 평면이 반영된 가옥인 것을 알 수 있고, 별채의 서쪽 한 칸은 아직도 구들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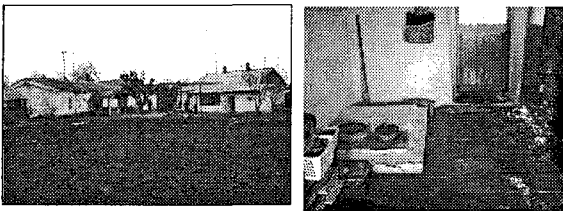


그림 25. 박 이들렌 가옥 원경 및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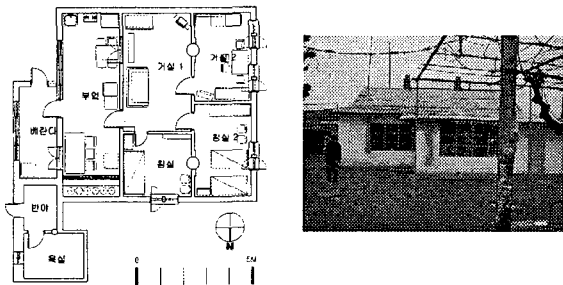


그림 26. 박 이들렌 가옥 원경 본채 평면도,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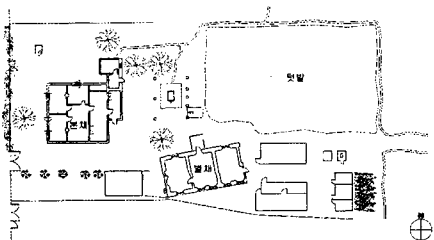


그림 27. 박 이들렌 가옥 배치도

라. 4기(1991-2003 현재)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고려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정책은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되돌아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중앙아시아 각국

의 경제 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지 조사 당시 새롭게 건립된 단독주택은 드물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4기에 건립된 건물을 변형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방을 덧달아서 주거 내부공간을 확장하거나 별채를 건립한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가 되면 난방방식이 폐치카에서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뀐 경우가 나타나며, 카자흐스탄의 백 빅토르 가옥(표 2 참조)에서는 집의 일부를 개조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필요한 방에 구들은 계속 설치하였으며 바닥에 온수파이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 이외에 우즈베키스탄인들도 이러한 온수파이프로 난방하는 구들을 선호한다고 한다.

최근 건립된 우정마을(그림 28, 29, 30, 31 참조)의 주택들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우정마을은 러시아 연해주 미하일로프카 인근에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지원하고 고려인재생기금이 주관하는 장기 정착촌 건립 사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고려인들을 위해 지은 26-28평형 단독주택과 2호 연립주택(그림 29 참조)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우정마을은 연해주정부로부터 70년간 무상임대 받은 택지 64만평에 2008년까지 주택 1,000호와 유치원, 학교, 상점 등을 건립하고 농지 900만평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1차로 2000년 9월 31채를 완공하여 거주자들이 입주하였다.

우정마을의 주택은 단독주택 3가지 유형, 연립주택 1가지 유형, 모두 네 종류의 평면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각 방들이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그림 29, 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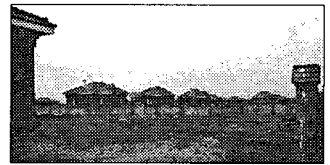


그림 28. 우정마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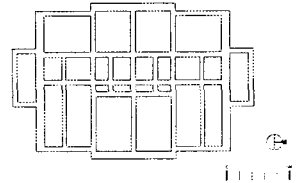


그림 29. 우정마을 2호 연립주택 기초

26) 우정마을의 2호 연립주택은 2003년 4월 현장 방문 당시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9는 기초 부분을 실측한 도면이다.

주택의 전면 중앙에 현관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통로 역할을 하는 홀이 있는데, 이 홀에서 각 실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현관에서 홀을 들어서자마자 홀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부엌이나 거실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거실과 부엌은 그 사이의 현관과 함께 집의 전면을 형성하고 있다. 홀 안쪽 좌우에는 두 개의 침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고, 두 침실 가운데에는 현관을 마주보며 창고가 있다. 이 창고는 원래 화장실 겸 욕실공간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상하수도 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은 건물 바깥 뒤에 별도로 세워져 있다. 화장실을 건물 바깥에 지은 실례는 고려인들의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난방은 부엌 페치카에서 온수를 데워 라디에이터를 통해 집 전체를 데우고 있으며, 부엌에는 식탁이 있고, 부엌 한쪽 바닥에는 지하실로 통하는 감자굴 뚜껑이 있다.²⁷⁾(그림 18, 31 참조)



그림 31. 우정마을 부엌의 페치카와 옥외 화장실

우정마을의 가옥들은 고려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여 건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러시아식 가옥들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평면 구성형식은 러시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홀을 중심으로 실들이 배열되어 있고, 난방은 페치카로 하고 있다. 한국 전통 주거형식의 특성을 보이는 대청과 같은 큰 공간이나 구들을 설치한 집은 한 가옥도 없었으며, 한국식 전통주거 생활을 수용할 별채를 건립하지도 않았다. 우정마을은 2003년 현재 본채만 지어져 있는데, 거주자들의 생업 방식에 따라서 부속채와 별채가 앞으로 더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한 거주자는 면담을 하면서 부속채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다만, 붉은 벽돌을 주택의 외벽 재료로 사용한 점, 지붕의 모양을 한국의 주택개발업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지붕에 기와를 이은 점은 우정마을의 주택들이 러시아 주택과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정마을에 고려인 3대, 4대들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켜오던 한국식 전통문화를 고려한 평면을 채용하지 않고 외형만 한국풍이 나도록 주택을 설계하여 건립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상 살펴본 4기의 주거 내용을 정리하면, 2003년 현재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의 주거건축은 3기에 지어진 주거건축을 증·개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구들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정마을과 같이 신축되는 가옥의 경우 평면 내용은 러시아 주거평면 형식을 따르고 있고 구들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외관은 고려인 집단 주거지임을 말해주듯 붉은 벽돌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지붕은 한국의 개발업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지붕에는 기와를 사용하여 러시아 주거와 차별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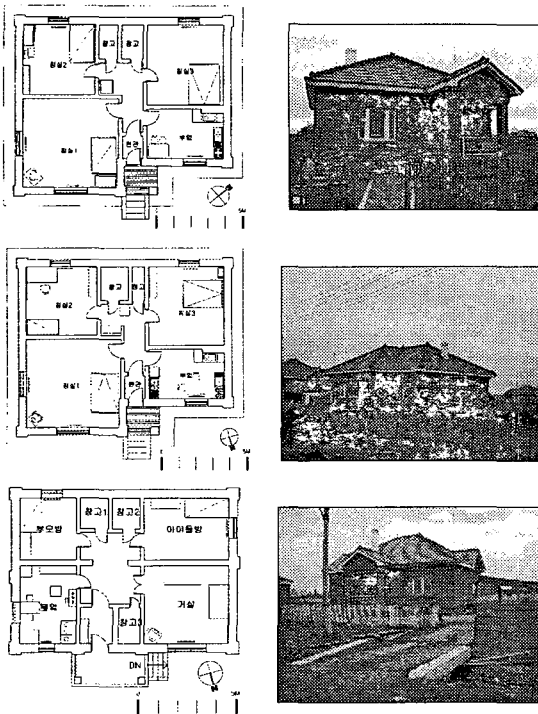


그림 30. 연해주 우정마을 가옥 유형

27) 우정마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일부분으로 진행된 조재순·이영심 외,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 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2.3. 종합적 고찰

이상 1864년 한국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37년 옛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강제이주 당하고, 그 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고려인들의 거주지 제한정책이 철폐되고, 다시 1989년 민족정책강령이 정해진 후, 드디어 1991년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고, 1993년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긴 세월동안 옛 소련 땅인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주거건축에 관한 내용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거는 도시와 도시외곽 지역은 아파트가, 농촌 지역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옛 소련 땅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인 고려인들의 주거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거를 살펴보았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아파트를 살펴보기 않은 것은 이 아파트들이 옛 소련 당국에 의해 표준 설계도면으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인들 생활을 반영하는 주거평면의 특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소련 지역에 한국인 동포가 거주하는 1기에 해당하는 1864년에서 1937년 사이의 연해주 고려인들의 주거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고려인들의 고향이었던 함경도 지방의 전통주거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고려인들은 이주 제1대, 제2대였기 때문에 이주해 오기 전의 주거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생활방식이나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생업방식에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²⁸⁾

2기에 속하는 1937년에서 1955년까지는 고려인들에게는 가장 큰 시련의 시기였다.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 중앙아시아의 남카자흐스탄주,

아랄 해, 발하슈 호수 지구,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이주당한 것이다. 소련 당국은 극비 문서로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을 퇴거시킬 지구의 순서를 명하고 차례로 ‘청소’하였다.²⁹⁾

1937년말 추운 겨울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는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버려진 고려인들의 주거는 우선 당장 거처해야 할 최소 규모의 구조물일 수밖에 없었다. 건축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대와 나뭇가지, 그리고 흙이 전부였고, 구조 방식은 원시시대부터 추위를 막기 위해 지구상의 인류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채용되어온 땅을 파고 집을 짓는 움집과 같은 땅집인 ‘켄량카’였다.

그 해 겨울을 넘기고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고려인들은 2칸에서 3칸 규모의 주거를 조성했는데, 땅집을 포함한 이들 주거는 한국전통 주거에서 채용되는 구들을 놓은 집이었고, 평면 형식은 방들이 옆으로 이어지며 배열되는 홑집 형식이었다. 이 시기 고려인들은 이주 제2대, 제3대에 속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전통주거 형식을 반영한 가옥에서 생활한 것을 알 수 있다.

1942년에서 1955년에 이르는 2기 후반부는 아직 이주 제2대와 제3대가 생존하고 있던 시기이며, 서서히 이주 제4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고려인들의 주거는 자신들의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짓고 싶은 가옥으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가옥들은 비록 흙벽돌로 지은 2칸 내지 3칸 규모로 작았으나, 부엌과 방이 한 줄로 옆으로 이어지며 배열되는 홑집 형식의 집이었다. 이러한 가옥은 한국전통 주거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옛 소련 당국이 표준주택으로 집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자 자신들의 주거문화를 반영한 가옥을 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3기에 속하는 1955년부터 옛 소련이 붕괴되는 1991년까지는 이주 제3, 제4대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가옥이 주 대상이 된다. 옛 소련은 1955년부터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많은 가옥들이 세워지는데, 현재 남아있는 많은 고려인들 가옥들은 이 시기에 건립된 것이다. 이 시기에 건립된 가옥들은 중앙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 도면에 기초하여 현지

28) 1864년 연해주 지방으로 처음 이주한 고려인들은 대부분 연령이 30대였다. 이를 바탕으로 1937년 이전까지 연해주에 거주한 고려인들은 이주 제1대, 제2대가 주를 이루는 것이 된다. 한국인이 연해주로 가장 많이 이주한 시기는 러시아가 고려인에 대해 유화정책을 쓴 1920년대이다. 1923년말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원동혁명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나는데, 이 숫자는 1894년 한국인 이주가 3천 가구에 일만명 정도라는 통계와 크게 대비가 된다.

29) 이창주, 『유라시아의 고려사람들』, (명지대학교 출판부, 1998), pp.95-138.

에 맞게 지었다. 이들 표준 도면은 건물 가운데에 있는 홀(복도방)에서 각 방으로 통하는 러시아식 평면을 하였는데, 이러한 평면 형식은 차차 러시아 생활 방식에 익숙한 제3, 제4대 고려인들에게는 친숙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구들이 설치된 방에서 자는 것보다는 침대생활을 선호하였고, 한국전통 생활에 필요한 손님 접대를 위한 구들방 등의 시설이 요구될 경우는 별채를 지어 해결하였다.

4기는 1991년 이후의 주거로서,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가 되면 새로 지어진 가옥이 적고, 다만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가옥을 개축, 증축하거나 별채를 건립하여 필요한 공간을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러시아와 한국 정부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이 한국 기업이나 관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우정마을과 같은 고려인 집단주거지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정마을의 가옥은 이주 제4대 이후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옥의 평면형식이 러시아 주거형식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외형에서 한국적인 풍격이 나는 재료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 살펴 본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 주거건축의 변화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고려인 주거건축 내용

시 기			특 징
1기	1864 - 1937	러시아 연해주 정착 초기	농촌에 거주하며 함경도 지방의 '한국전통 주거'를 그대로 건립, 가옥의 규모가 비교적 컸음.
2기	1937 - 1955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직후부터 전후 복구 사업 시기	땅을 75cm 정도 파서 만든 '땅집'인 '젬랑카'를 건립. 생존을 위한 최소 규모의 주거임. 흙벽돌을 이용하여 한국전통 주거형식인 두 칸, 혹은 세 칸 규모의 '자형 가옥' 건립.
3기	1955 - 1991	전쟁복구 이후의 성장 및 1970년대 장기집체	표준도면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변형한 러시아식 주택 건립. 구들 설치, 별채 건립, 2기의 가옥들이 별채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4기	1991 - 현재	옛소련 붕괴,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 고려인 거주 이주의 자유	대부분 3기의 가옥을 확장, 증축해서 사용, 최근 신축된 우정마을 가옥들은 외형에서 한국 주거문화를 반영하는 재료 사용과 지붕모양을 볼 수 있음

3. 결론.

지금까지 옛 소련 지역에 속하는 러시아 연해주 지방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주거건축을 시기별로 살펴 보았다. 연해주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살고 있던 가옥의 평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가옥을 건립하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이후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1937년 이전까지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 중에는 러시아 문화를 받아들여 러시아식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 시기 대다수 고려인들은 그들의 고향인 함경도 지방의 전통가옥 평면 내용과 동일한 가옥을 건립하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처음에는 가장 원초적인 구조물인 땅집에서 생활하였으나 1940년을 전후해서 자력으로 일자형 가옥을 건립하여 살았으며, 가옥의 평면형식은 아궁이가 있는 정지간과 구들을 놓은 방(들)을 일렬로 배열된 것으로, 한국전통 주택 평면의 방 배열 방식이 반영된 흙집과 같은 것이었다.

1955년을 전후해서 고려인들의 주거는 크게 변하게 된다. 중앙 정부가 설계한 표준 도면에 의해서 지은 러시아식 주거의 평면 형식을 수용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별채를 건립해서 구들방을 만들거나, 본채의 방 한 칸이나 두 칸을 구들방으로 만들어 한국전통 주거 방식을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옥들은 증축·개축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러시아식 생활에 적합하도록 가옥을 개조하여 구들방을 없애는 가옥도 있다.

하지만 이 당시 지은 주택은 러시아 주거평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택의 평면 형식은 한국전통 주거평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국전통 주거생활을 반영하는 구들을 놓는 빈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4기에 건립된 우정마을은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형식의 변화는 고려인 3대, 4대들이 러시아식 주거문화에 동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려인들의 주거의 변화는 이주 초기에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던 고려인들이

세월이 흘러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역사가 길어지고, 후대로 내려가면서 러시아 문화를 점점 더 수용하며 러시아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간직해온 주거문화와 시설이 신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좌식생활, 그리고 구들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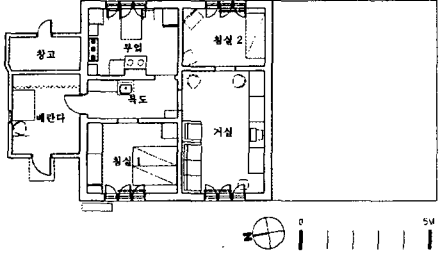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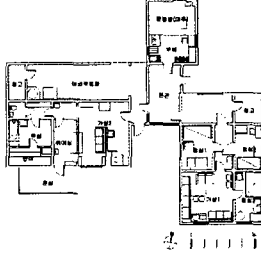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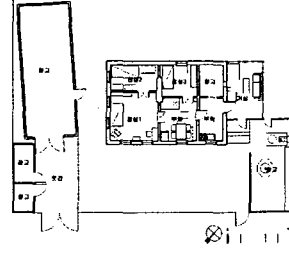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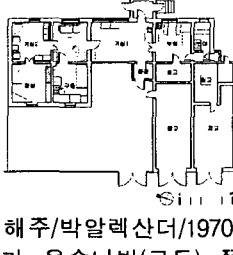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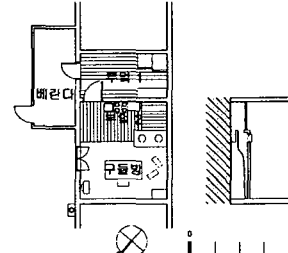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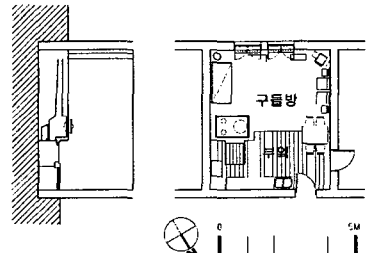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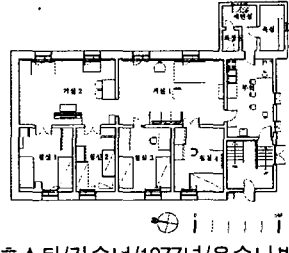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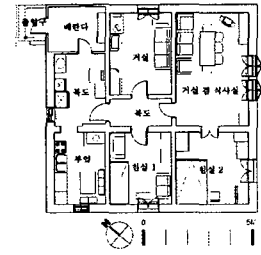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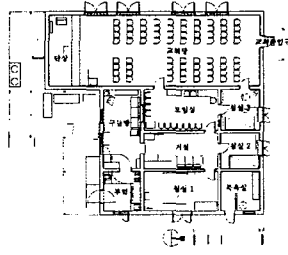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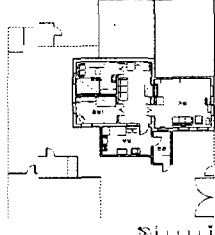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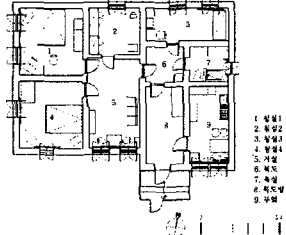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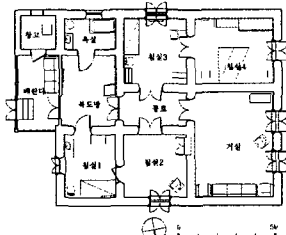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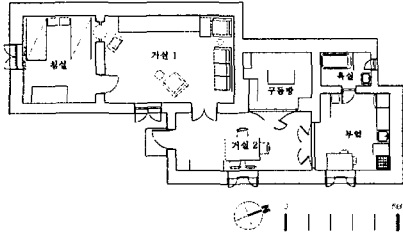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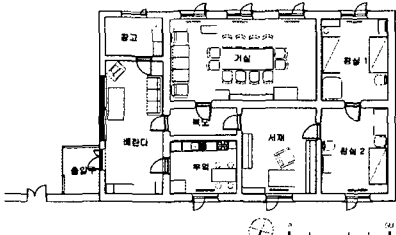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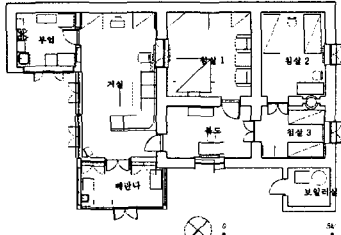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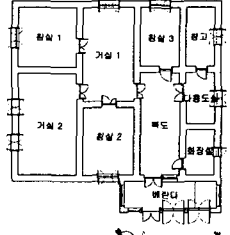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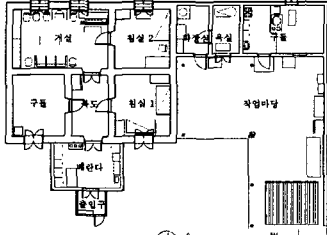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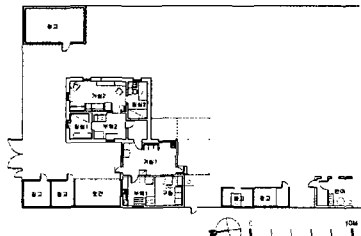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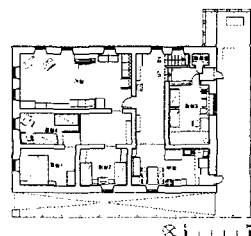
1. 『俄國輿地圖』
2. 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1999.
3. 권희영,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 『국사관논총』 제4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4. 류학귀, 「한민족공동체와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한민족공영체』 제6호, 해외한민족연구소, 1998.
5. 박환, 『재소한인 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6.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03.
7.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1994.
8. 이상근,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1996.
9. 이상일, 「한인의 노령이주와 제정러시아의 대한인 정책」, 『태동고전연구』 제14집, 태동고전연구소, 1997.
10. 이상해, 이진현,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권 1호, 대한건축학회, 2003.
11. 이상해, 정재국, 이진현,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주거 - 아흐마드 야사비 콜호즈를 중심으로」, 『한국 건축역사학회 200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12. 이영심·조재순,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대한가정학회, 2003.
13. 이영심·조재순·이상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대한가정학회, 2003.
14. 이영심·조재순,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 연해주(Yunhaju: 沿海州)지역

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1), 한국주거학회, 2004.

15. 이철, 「한국인의 러시아 이민사」, 『슬라브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 및 동구권문제연구소, 1991.
16. 조재순·이영심·이정규·이선희, 「중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17. 이창주, 『유라시아의 고려사람들』, 명지대학교 출판부, 1998.
18. П. Ким(1993), *Корейц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Ташкент*.
19. И. С. Болджурова *История(2003), культура и быт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Бишкек*.

표 2. 조사한 3기 가옥 목록

지역/가옥주/건축연도/난방방식	지역/가옥주/건축연도/난방방식
 <p>연해주/김베네라/1975년/페치카, 온수난방</p>	 <p>연해주/김웨라/1973년/페치카, 온수난방, 구들</p>
 <p>연해주/김일루사/1980년/페치카</p>	 <p>연해주/박알렉산더/1970년/ 페치카, 온수난방(구들), 쪽구들</p>
 <p>카자흐스탄/현니콜라이/1970년/온수난방, 구들</p>	 <p>카자흐스탄/박니콜라이/1985년/온수난방, 구들</p>
 <p>카자흐스탄/김순녀/1977년/온수난방(구들)</p>	 <p>카자흐스탄/박보리스/1970년/온수난방, 구들</p>
 <p>카자흐스탄/니올가/1966년/페치카, 온수난방</p>	 <p>카자흐스탄/백빅토르/1966년/온수난방(구들)</p>

지역/가옥주/건축연도/난방방식	지역/가옥주/건축연도/난방방식
 <p>카자흐스탄/전블라디미르/1967년/폐치카, 온수난방</p>	 <p>우즈베키스탄/박블라디미르/1970년/온수난방(구들)</p>
 <p>우즈베키스탄/하니끌라이/1956년/온수난방(구들)</p>	 <p>우즈베키스탄/최일리아/1970년/폐치카, 온수난방(구들)</p>
 <p>우즈베키스탄/김알레세이/1974년/온수난방</p>	 <p>우즈베키스탄/박니콜라이/1964년/온수난방</p>
 <p>우즈베키스탄/리철수/1961년/온수난방(구들)</p>	 <p>우즈베키스탄/김니콜라이/1967년/온수난방(구들), 구들</p>
 <p>연해주/리올라/1961년/폐치카, 구들</p>	 <p>연해주/전인수/1992년/온수난방</p>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in Russia and Central Asia

Lee, Sang-Ha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wellings of the Korean diaspora in Maritime Provinces of Russia, and Kazakhstan and Uzbekistan of Central Asia to find the gist of the residence transformed as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culture to accept Russian foreign culture. Through the examination,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dwellings of the Korean diaspora was found as follows:

- 1st period(1864-1937): The Korean diaspora who immigrated to Maritime Provinces of Russia built traditional houses of Korean style and few of them lived in Russian style houses.
- 2nd period(1937-1955): The Koreans who immigrated to Central Asia from Maritime Provinces under compulsion built 'ground house' by digging the earth and installed *gudeul*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heating system and roofed with reed.
- 3rd period(1955-1991): The Koreans built straight lined '—' shape houses with two or three rooms wherein most of them were installed with *gudeul* to heat the room. Around the 1940s as they economically got well, the Koreans started to build houses with Russian style with one or two rooms with *gudeul* or a separate building with *gudeul*.
- 4th period(1991-present): Houses of the 3rd period are still used by being enlarged or remodeled with less use of *gudeul* which is well reflected on Ujeong-maul village in Russia Maritime Provinces.

As can be found above, the dwellings of the Korean diaspora in Russia Maritime Provinces and Central Asia are on the process of being transformed into Russian style to adapt to Russian culture.

Keywords : Dwellings, *gudeul*, Korean diaspora, Maritime Provinces of Russia, Kazakhstan, Uzbekistan
